



2024년 9월 15일(제1211호) 연중 제2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르 8,29)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을 넘어 “너희에게 나”는 누구인지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넘어 제자들 각자가 함께하며 보고 느끼고 따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체험한 베드로이기에 바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를 보고 듣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당신이 보고 느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 나에게 커다란 의미 / 너의 작은 그 눈빛도 /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겐 힘겨운 약속 / 너에게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오늘 복음과 함께 노래의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 ‘너’의 의미, 곧 존재를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너’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너’에게로부터 찾는다는 것, 이 ‘나에게 다가온 너’가 나에게 진정 커다란 의미이며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이 혹여 다른 이들에게는 작아 보이고, 쓸쓸해 보이더라도 나는 그러한 너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겠다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바라는 그,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그가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나의 이상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한 분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한 은총과 사랑의 계획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군종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1요한 4,19 참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 죄와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바쳐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완성해 나갑시다.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화답송 발췌)

조해용(요셉) 신부
필성(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50,5-9ㄴ

회 답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 시

야고 2,14-1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마르 8,27-35

영 성 제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그런데 조금 후에 포졸떼가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습격하며 미사 집에 손을 집어 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성모님의 보우하심으로 저는 그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관가로 다시 가서 관장 앞에서 짐들을 풀어 보자. 여기서는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집에 손을 댈 수 없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자들이 감히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사를 받기에 필요한 마음 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성사 주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저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저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또다시 그들의 손에서 요행히 빠져 나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나 박해와 환난만 당하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극악한 사람들이요, 배신자들이요, 강도들이요, 잔학무도한 난동자들이요, 폭도들인 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비참을 능가하는 더 큰 위안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노고와 고난 중에서도 그 안에 최고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직 생활의 보람이요 그것이 우리의 화관(花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의 다른 위안과 다른 종류의 하느님의 자비하신 축복을 신부님께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배신자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착스런 마귀떼 같은 원수들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우리의 동료 전우들을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반대자들까지도 좋으신 하느님의 은덕으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마음만 가득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벽 안에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재물만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 베드로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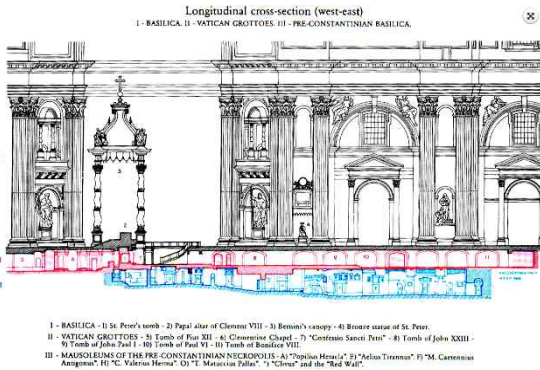


성당 외부



성당 내부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교회의 열쇠를 맡기신 성 베드로 성인은 초대 교황이 되시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시는 순교를 당하십니다.



단면도(초기 순교자들의 무덤/매장 지역 위에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 베드로 성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프란지스코 교황님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4세기경에 처음 지어졌으며, 이후 수 세기에 이르러 꾸준히 증축 보수되었다. 교황님은 선종 후 이곳에 묻히신다. 16세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36.57m에 달하는 돔을 미켈란젤로의 재설계에 바탕하여 완성하였으며, 돔 내부에는 2미터짜리 글자가 새겨져 있다.

“TV ES PETRVS ET SVPER HANC PETRAM AEDIFICABO ECCLESIAM MEAM. TIBI DABO CLAVES REGNI CAELORVM.”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8-19)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 교구장 동정

- 한국 주교단 사도좌 정기 방문
- 때·곳: 9월 9일(월)~24일(화), 로마 바티칸 교황청

◆ ‘군중의 시간’ 인니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해병중앙 박동진 신부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상인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